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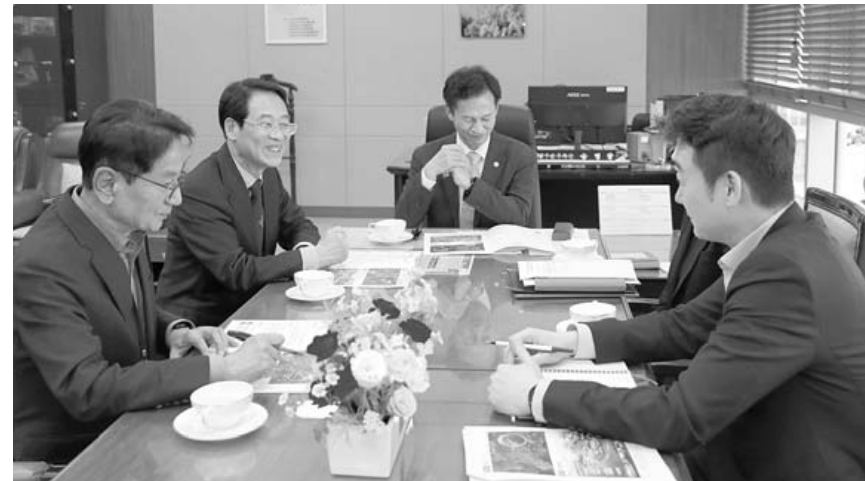
# “新강진 도약의 해”...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

## 국·도비유치팀 신설 등 중앙부처 수시 방문 선제 대응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CLEAN 국가어항 사업 ‘집중’

강진군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에 한 발 앞서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원 강진군수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확보 활동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해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순수 국·도비 1천7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것을 뛰어넘어 올

해는 2천억원 이상을 목표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직접 챙기고 있다. 군은 보다 확실한 성과를 위해 실무 부서장이 참석하는 관련 회의를 수차례 열고 국·도비유치팀을 만들어 공모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최근 해양수산부를 방문, 송명달 차관을 면담하고 해양·수산 분야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 ▲마량항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신규지구(5개소) 반영을 요청했다. 강진군은 민선 8기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강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시대,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수상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 18일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업 기반 시설, 생활 서비스 복합시설 등 전국적으로 최대 4곳이 선정되며 국재정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상의 민자사업 연계를 필수다. 마량항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150억원이 투입되며 지자체·민자 사업비 투자는 제한이 없다. 경관을 저해하거나 낡은 시설을 철거하고 아스콘 재포장을 하며 친수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화장실을 증설하며 페어구 보관장을 신축해 어항의 기능을 대폭 향상, 쾌적한 환경과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하반기에 공모할 계획으로 준비 중이다. 강진원 군수는 “건이한 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2024년을 신강진을 위한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책 읽어주는 이야기 할머니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무릎 교육’ 등 다양한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할머니를 지역 영·유아 교육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정경자 이야기 할머니가 영암 덕진면 월출어린이집 오리온반 아이들에게 친구 이야기 담그기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영암군 제공>

##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영광군 6월까지 징수기간...특별징수 전담팀 구성

영광군은 21일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근수를 운영단장으로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당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산 자산 등을 압류하고 추심·공매할 계획

이다. 또한 연중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 체제 강화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고부 유예, 인·허가 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또는 납부 의지는 있으나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영직 재무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힘들지만,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기 착공 박차

### 덴마크 CIP기업 100억 투자...해양 지반조사 ‘순조’

신안군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 혁신면 해상 일원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덴마크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이 100억원을 투자해 특수조사 선박을 이용, 해양 지반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해상풍력은 공사 시작까지 받아야 할 인허가 절차만 10개 부처, 29개에 이르는 데, 해당 개발사는 지난해 3월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발전단지 설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반조사 착수 전 어업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신안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총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완공되면 약 11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약 3만4천600개의 건설·운영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고정식 해상풍력 2GW 이외에도 부유식 해상풍력 10GW를 추정하고 있어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아시아의 해상풍력 중심지로 입지를 확고히 다질 계획이다. /신안=양훈기자



해양 지반조사에 사용되는 선박. <신안군 제공>

## 청년 문화복지카드 25만 원 지원 해남군, 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해남군은 21일 “청년들의 문화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25만원이 적립된 문화복지카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카드에는 영화 관람, 도서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 문화활동과 자기계발을 위해 전남도 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둔 19~28세 청년(1996~2005년생)이다. 단, 복지포인트를 지급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을 당해연도 1회 이상 지급 받았거나 지급 대상자,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차액 12만원만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농협카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를 마친 뒤 5월 중에 카드 발급할 예정이다. 카드는 올해 12월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월은 불가하다. /해남=백필용기자

## 목포시 출연기관 경찰수사의뢰...당사자 ‘반발’

### DJ부부 밀랍인형 제작...해당 직원 SNS ‘무고’ 주장

목포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제작 부당 의혹’ 관련 출연기관의 직원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제작 부당 의혹’과 관련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소속이었던 팀장 A씨와 직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목포시가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제작 부당 의혹’ 관련 출연기관의 직원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를 한 가운데 해당 직원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제작 부당 의혹’과 관련 (재)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소속이었던 팀장 A씨와 직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지난해 기념관을 비롯한 3개 시·군·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3년간

를 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노동부의 복지명령은 거부하고, 업무상배임으로 수사의뢰를 했는데 증거가 확실하면 고소를 해야지 수사 의뢰가 뭐냐”라며 무고를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수사에 빠진 기관장은 퇴직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의뢰에서 제외된 것뿐”이라며 “그의 필요 한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지난해 2020년 사업비 4천400만원을 들여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밀랍인형 제작을 의뢰했고, 2021년 납품받아 전시했으나 현재는 철거돼 기념관 수장고에서 보관 중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 ‘함평 나비대축제’ 성공기원, 나비 날리기 행사

### 함평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서 진행

함평군은 21일 “지난 20일 함평엑스포 공원에서 제2회 함평나비대축제의 성공 행진을 기원해 나비날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운영장 함평군의회 의장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함평 엑스포공원 수생식물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나비대축제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군에서 직접 키운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나비 2천2마리를 하늘로 날려 보냈다. 올해 축제는 함평추억공작소 개장과 더불어 황금박쥐조형물 전시, 나비생태관을 재개장한 나비구조대 퍼레이드, 나비숲 친구들 포토존 등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할 예정이다. 이상의 군수는 “나비대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600여명의 임직원들이 전

력을 다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광객,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찾아가는 함평 여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함평=김연수 기자



## 완도군 ‘웰니스 관광 활성화’ 이벤트

### 해양치유센터 등 5개소 방문 후기...여행경비 지원

완도군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완도풀 힐링 미션 투어’를 진행한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풀 힐링 미션 투어’는 완도의 웰니스 관광지인 해양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해양기후치유센터, 약산 해안치유의 숲, 청산 해양치유공원 등 5개소를 방문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남긴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다. 웰니스 관광지 중 1개소 체험은 필수이며 관내 숙박과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이용 금액에 따라 영수증 합계 10만원 이상이면 3만원, 20만원 이상이

면 7만원, 30만원 이상이면 10만원을 지원한다. 필수 해시태그는 #해양치유완도, #치유의섬완도, #완도풀, #완도웰니스 등이다. ‘완도풀 힐링 미션 투어’ 여행 경비는 연 1회 지원되며, 타지역에서 완도를 여행하고자 하는 10인 이하 관광객이 대상이다. 완도군민과 여행사 및 11인 이상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행경비 지원 신청은 먼저 여행 최소 하루 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 제출 방법은 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제2024-256호)에서 확인하면 된다. /완도=윤보현 기자

관광 후 SNS에 인증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공유하고, 관광지 입장료 또는 체험료, 숙박·식당·카페·특산물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행 경비는 여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일 기준 익일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 확인 또는 군관광과(061-550-5426)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윤보현 기자